

“난 인턴 대표…일당백 직원들 덕 많이 봤죠”

ROAD FC
ROAD FIGHTING CHAMPIONSHIP

로드FC 김대환(40) 대표는 실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격투기계의 독보적인 존재다. 격투기 선수에서 해설가 그리고 지금 격투 단체의 대표자리에 오르기까지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이다.

다양한 경험을 해봤지만 그에게 가장 낮은 자리는 역시 지금의 경영자 자리다.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진 지금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다. 그에게 한줄기 희망은 바로 ‘일당백’ 직원들이다. 스스로 ‘인턴 대표’라며 자기 자신을 낮춰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직원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직 취임 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에게 로드FC는 무엇이고, 자신을 도와주는 직원들은 또 어떤 존재인지를 물었다.

●“일당백 직원들, 넉넉하게 쉬다 오세요”

-대표직에 오른 지 1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무엇인가.

“먼저 그동안 회사를 이끌어 온 정문홍 전 대표 그리고 함께 달려온 직원들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다. 로드FC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회사의 일원으로서 안에 들어오니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나.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데 파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바람이 불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더라. 참 많이 배우고 있다. ‘일당백’의 특수부대 같은 우리 직원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또 동업자 의식을 갖고 함께 땀 흘리는 선수들이 있기에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내부 살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항상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대표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한다. 일을 잘하는 것에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넉넉하게 휴가를 주는 것이었다.”

-모든 직원에게 말인가?

“그렇다. 정 전 대표가 만든 로드FC의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회를 치르며 정신없이 달려온 등 큰일을 마무리하면 직원들에게 긴 휴가를 주곤 했다. 길게는 1개월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 이번에는 약 20일 정도, 거의 방학에 가까운 휴가를 주도록 했다. 여행을 가든,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서 쉬기만 하든 그저 모두들 편하게 쉬면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했으면 한다.”

항상 땀 흘려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방학 같은 휴가’ 선물

사랑·나눔 프로젝트…봉사·선수와 만남·팬 소통 1석3조

유소년·센트럴 리그 주기적 개최…아마추어 활성화할 것



로드FC 김대환 대표는 격투기 선수에서 해설가를 거쳐 격투 단체의 대표자리에 오르며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다. 한 단체의 대표로서 경영자의 자리에 있는 지금 모든 것이 낯설지만, 든든한 직원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사랑·나눔 프로젝트 많은 관심 부탁”

-사회공헌활동 ‘사랑·나눔 프로젝트’를 올해도 진행하더라.

“이것 역시 정 전 대표가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다. 감사하게도 굿네치킨과 바인그룹에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셔서 좋은 일을 계속 하고 있다. 취임 후 첫 ‘사랑·나눔 프로젝트’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특별히 본인도 이번 프로젝트에 애정을 쏟는 이유가 있나.

“일단 활동의 의미자체가 너무 좋다. 또 이렇게 한 번씩 자리를 만들면 로드FC 소속 선수들도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볼 수 있다. 전국에 선수들이 흩어져있기 때문에 같은 체육관이거나 장소에 친분이 있지 않으면 선수들끼리도 왕래하기가 어렵다. 좋은 일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게 있겠나. 선수들과 이야기 나누고, 팬들과도 가까운 곳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어 1석 3조다.”

●“아마추어리그, 반드시 활성화시키겠다”

-로드FC 운영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

“로드FC는 내가 대표로 취임하기 오래 전부터 이미 한국 최대 규모의 격투 단체였다. 그 규모를 유지하며 내 스타 일대로 발전을 꾀하는 게 최상이라 본다. 그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게 바로 아마추어리그의 활성화다.

-구체적인 진행방향은 무엇인가.

“소규모의 유소년리그, 센트럴리그는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개최하려 한다. 현재는 서울에서만 진행하고 있는데 더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는 16일 개최하는 제3회 세계종합격투기 대축제와 같은 대규모의 대회도 더욱 자주 개최하고 싶다. 아마추어, 프로를 막론하고 선수들은 그런 목표와 동기부여가 있어야 훈련이 더 잘 된다.”

-지역 개최에도 크게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회를 더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11월 3일에는 대전 대회가 잡혀있다. 그동안 원주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주로 대회를 개최했었고 부산, 구미, 충주 등에서도 했었다. 대전 개최는 처음인데, 내 고향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이다. 내년 상반기 계획도 이미 거의 완성해 놓은 상태여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로드FC 팬 분들을 만날 계획이다.”

장문성 기자 award@donga.com

KPGA 신한동해오픈 오늘 티샷

박상현·안병훈·김경태 한미일 강자 ‘진검 승부’

한·미·일 3개 투어에서 활약하는 정상급 골퍼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2억원·우승상금 2억1600만원)이 13일 인천 서구 베어즈베스트청라 골프클럽(파71·7252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존재감을 알린 안병훈(27·CJ대한통운)의 깜짝 출전이 최대 화제다. 안병훈은 최근 진행 중인 페덱스컵 플레이오프(PO)에서 3차전까지 진출하며 순위를 끌어올렸는데, 아쉽게 최종전 출전이 불발되면서 2015년 자신의 코리안 투어 첫 우승을 장식했던 신한동해오픈으로 방향을 틀었다.

2년 만에 국내 필드를 밟는 안병훈의 대항마로는 올 시즌 코리안 투어에서 홀로 2승을 거둔 박상현(35·동아제약)이 꼽힌다. 박상현은 아직 신한동해오픈 우승이 없지만 최근 가장 좋은 감각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우승에 가장 가깝게 다가섰다는 평가다. 여기에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에서 잔뼈가 굵은 김경태(32·신한금융그룹)와 디펜딩 챔피언인 리처드 리(28·캐나다) 역시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2017~2018시즌 PGA 투어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와 12일 대회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병훈은 “올 시즌 목표가 컷타락보다 톱10을 많이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이뤄내 기쁘다”면서 “2년 만에 신한동해오픈에 나서게 됐다. 코스를 둘러보니 전장도 길고 러프도 길다.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코스를 좋아한다”며 우승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합격생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주택관리사 학습기관 선택시 ‘사후관리 여부’ 따지세요

“주택관리사 시험은 법이나 계산 문제 때문에 어렵 다던데요?”

주택관리사를 망설이는 수험생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에듀윌 주택관리사 유재욱 교수는 “공동주택을 책임지는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니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며 “공동주택의 예산을 관리해야 함은 물론 분쟁 해결 또는 안전 문제까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학습기관을 선택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학습기관을 경험해보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비용과 시간상 중간에 학습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작부터 나에게 잘 맞는 공부법을 선택해야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다.

가장 집중해서 단기간에 끝내기 쉬운 방법은 단원 학원이다. 동료들과 경쟁적으로 공부하면서 학원과 강사들의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는다면 장동면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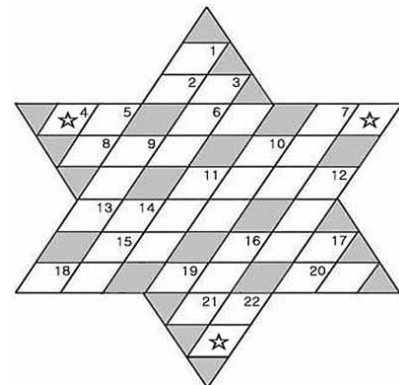
이에 에듀윌은 전국에 지역학원을 운영 중이다. 서울 대방학원을 비롯해 서울 노원·부산 서면·인천 부평 학원을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대전 지역에 개원했다. 에듀윌의 지역학원은 체계적인 학습코칭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강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 ‘에듀윌 주택관리사 동문회’를 운영해 합격생들의 취업까지 프리패스로 돕는다. 특히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취업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2.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감. 04.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들임. 06. 개인이 사사로이 진 빚. 07. 도로 거두어들임. 08. 항공기를

사격하는 데 쓰는, 양각(仰角)이 큰 포. 10.편들어서 감싸 주고 보호함. 11.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음. 13.겉보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15.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 내는 재능. 16.먹는 물이나 공업, 방화(防火) 따위에 쓰는 물을 관을 통하여 보내 주는 설비. 18.풀, 짚 또는 가축의 배설물 따위를 섞인 거름. 19.도장을 찍는 데 쓰는 붉은빛의 재료. 20.비행기 따위가 공중에서 활주로나 판관한 곳에 내림. 21.짓지 아니함.

■ 세로 열쇠

01.빼앗아 가짐. 03.조준 장치로 직접 목표물을 겨누어 쏘는 포. 05.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씀. 또는 그런 어려움. 07.기뻐

서 크게 부르짖는 소리. 09.편란드식의 증기 목록. 10.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기. 11.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12.거리의 미관(美觀)과 국민 보건 따위를 위하여 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 14.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16.염주가 운데에 꿰 가장 큰 구슬. 17.목적한 곳에 다다름. 22.말이나 행동을 잘못하여 자기의 지위, 명예, 체면 따위를 손상함.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쓴 다음 ☆를 이어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포츠 스타 이름이 됩니다.

